



사랑하는 수녀님들께,
복음의 여인들처럼 부활 아침
저희도 부활하신 주님을 알리려 달려가
여러분에게 부활 축하 인사를 전합니다.

자매요 어머니인, “새로운 여인들”의 모습으로
목자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걸어가기 위해,
그리고 주님과 그분의 백성에 속함에서
흘러나오는 기쁨의 증거자들이 되기 위한
사목적 모성이 가득한 선포입니다.

사랑과 기도로,

아민따 사르미엔토 뿌엔테스 수녀와 총본부수녀들 드림

2018 부활절, 로마